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7.(월) 12:00
(지면) 2026. 9. 8.(화) 조간

행안부가 지원하는 섬 여행, 최대 10만 원 받는다 ... 9월 8일부터 사전 신청

- 행안부, '2026년 섬 방문의 해' 맞아 10월 1일~11월 4일 섬 여행 경비 지원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여수 지역 섬 방문객 여객선 50% 특별 할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일(목)부터 11월 4일(수)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민의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8월 처음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9월 5일(토)부터 11월 4일(수)까지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추진된다. 박람회 관람객이 여수의 다양한 섬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4일로 정하고, 여수 지역 섬에 대한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 1박 이상 섬 여행 시 최대 10만 원 지원, 9월 8일부터 사전 신청

지원 대상은 1차 지원과 동일하게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팀 단위 지원)이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에서 실제 지출한 여행 경비 전반이다.

사전 신청은 9월 8일(화) 10시부터 9월 21일(월) 18시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https://www.visitisland.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받은 기간 내 실제로 섬 여행을 다녀온 후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10만 원의 여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섬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9월부터 12월까지 여수 섬 방문객에게 여객선 운임 50% 지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여수시에서는 타 지역 방문객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여수의 섬을 방문하는 타 지역민에게 여객선 운임의 절반(50%)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예매 누리집(<https://island.theksa.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섬은 누구나 한 번쯤 여행하고 싶은 곳이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다.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께서 섬을 찾아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유한 문화,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경험하고 섬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섬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유정 (044-205-3530)
		담당자	서기관	정태욱 (044-205-3524)